

교육학석사학위청구논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연구:
주요 등장인물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The American Dream Reflected in the Main
Characters of *The Great Gatsby*

2005년 2월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영어교육전공

이혜영

교육학석사학위청구논문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연구:
주요 등장인물에 나타난 아메리칸 드림

The American Dream Reflected in the Main
Characters of *The Great Gatsby*

2005년 2월

지도교수 김 종 석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본 논문을 이 해 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05년 2월 일

주심 _____

부심 _____

위원 _____

< 목차 >

국문초록

I. 서론	1
II.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	6
III. 각 인물을 통해 본 미국의 꿈	14
1. 제이 개츠비	14
2. 뷰캐넌 부부와 머틀 윌슨	28
3. 닉 캐러웨이	39
IV. 결론	47
Bibliography	51
Abstract	53

국 문 초 록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물질주의와 이상주의의 본질에 대한 탐구이며, 초기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균형의 회복을 위한 시도이다. 이 소설은 이상주의가 사라지고 물질주의가 추구된 소위 재즈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나 『위대한 개츠비』에서 피츠제럴드는 화자인 니콜을 통해서 물질주의가 인간성에 가하는 폭력적 파괴성을 고발함으로써 물질주의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보여준다. 피츠제럴드는 니콜을 물질주의와 이상주의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도덕주의자로 제시한다.

이 논문의 목적은 이상주의자, 물질주의자, 도덕주의자의 세 부류로 나누어지는 인물들이 어떻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고, 어떤 부류의 사람이 이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인지 고찰하는 것이다. 개츠비에게 부는 오직 그의 꿈을 이루는 수단으로서만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개츠비는 이상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대로 뷰캐넌 부부와 머틀은 그들의 물질주의적 관점 때문에 물질주의를 대표한다. 그들의 물질주의는 재의 계급에 의해 상징된다. 그것을 통해 정신이 실종된 그들의 삶이 폭로된다. 개츠비에게 물질주의자인 데이지는 그가 부활을 꿈꾸는 이유가 된다. 그러한 부활을 계획하는 것이 그의 꿈이다. 화려한 선원들이 신세계의 초록빛 가슴에 의해 고무되었던 것처럼 개츠비도 불가능에 도전하기 위해 초록색 불빛으로 상징되는 데이지에 의해 힘을 얻는다. 그러나 개츠비는 자신의 극단적인 이상주의에 의해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데이지의 실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데이지는 또한 물질주의에 의한 타락을 상징한다. 개츠비의 꿈 그 자체가 데이지에 의해 타락됨에도 불구하고, 삶의 희망을 향한 그의 높은 감수성 때문에 개츠비의 이상은 아메리칸 드림을 계승하고 있다.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을 처음 만든 화

란 선원의 정신적 후계자이다.

개츠비가 뷰캐넌 부부의 부주의함에 의해 살해당하면서 이상주의는 물질주의에 의해 패배당한 것으로 보인다. 피츠제럴드의 메시지는 꿈이 타락한 현대 사회에서 이상주의가 실현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츠비의 죽음 이면에는 타락한 사회를 뛰어 넘은 개츠비의 순수한 꿈이 살아있다. 도덕주의자인 닉은 개츠비의 이상주의가 뷰캐넌 부부에 의해 패배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한다.

도덕성은 인류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이상주의와 물질주의가 조화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활기차고, 타락되지 않은 도덕 정신은 이처럼 타락된 현대 사회에서 건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다. 결론적으로 『위대한 개츠비』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은 자기 발전을 위한 이상주의와 그것을 지탱하게 해주는 물질주의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이 소설에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으로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은 닉이고 오직 닉만이 희망이 있는 서부로 돌아간다. 이 점에서 우리는 아메리칸 드림이 도덕주의자에 의해 부활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다.

I. 서론

피츠제럴드(F. Scott Fitzgerald: 1895-1940)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The Great Gatsby*)는 1925년에 출판되자마자 미국의 독자들을 흥분시켰다. 엘리엇(T. S. Eliot)은 이 작품에 대해 “이제껏 보았던 다른 어떤 소설보다 더 나를 열광시켰다.[. . .] 사실, 헨리 제임스 이후 미국 소설이 첫발을 내딛은 것 같다”(93)고 했고, 웨인(Charles E. Shain)은 “이제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 문학의 정신이 되었다”(35)고 했으며, 도스 파소스(John Dos Passos)는 “비평가로서 『위대한 개츠비』에 대한 언급 없이 피츠제럴드에 대해 논하는 사람은 비평가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다”(156)라고 극찬했다. 피츠제럴드는 이 작품을 통해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미국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가치관의 혼란, 기존의 윤리 도덕과 가치체계의 와해 등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과 관련시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피츠제럴드 스스로도 『위대한 개츠비』를 발표하기 전 1924년 그의 친구 윌슨(Edmund Wil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내 책은 훌륭하다”(Eble 101)라고 했으며, 그 후에 그의 친구 비숍(John Pearle Bishop)에게 “나는 내 소설을 확신한다. 그것은 정말 뛰어나다”(Eble 101)라고 말하면서 그의 작품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피츠제럴드가 작품을 쓴 19년대는 1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과 이의 결과로 생긴 물질적인 풍요로 인해 미국 사회가 사치와 방탕의 시기로 접어든 때였다. 그는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환멸과 정신적 방황을 어느 작가보다도 진지하게 작품 속에 반영시켰다.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적 배경으로 삼은 미국의 1920년대는 과잉의 시대이자 광란의 시대로 특징지을 수 있다. 카울리(Malcolm Cowley)는

1920년대의 종교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20년대는 신교도 교회들이 그들의 주도적 위치를 상실하면서 청교주의가 공격당하던 시대이다.[. . .] 1920년대는 미국 문화가 도시화 되고 뉴욕은 나라의 사회적이고 지적 기준이 되었다.[. . .] 게다가 1920년대는 생산 윤리가 소비 윤리로 대체된 시대였다.

The 1920s were the age when Puritanism was under attack, with the Protestant churches losing their dominant position.[. . .] The 1920s were the age when American culture became urban instead of rural and New York set the social and intellectual standards of the country.[. . .] More essentially the 1920s were the age when a production ethic gave way to a consumption ethic. (53)

즉, 종교적으로는 청교주의(Puritanism)가 공격을 받고, 사회적으로는 물질문명이 집중되는 도시중심의 문화가 번성하고, 경제적으로는 생산보다는 소비윤리가 중시되는 사회가 1920년대 미국사회였다.

1914년에서 1918년까지의 제1차 세계대전은 기존의 가치관의 붕괴와 그에 따른 쾌락의 추구를 촉진시켰고, 가치관의 혼란으로 방황하고 있던 젊은 세대들은 잃어버린 자아를 찾으려다 도리어 환멸을 느끼고 당시의 유행 음악인 재즈에 몰두하였다. 1919년 노동절(May Day)은 소위 재즈시대(The Jazz Age)가 시작된 바로 그 날이었다. 1919년 노동절 폭동에서 시작하여 1929년 10월의 경제 공황까지 10년 간의 재즈시대는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의 시대적 배경이 되었다. 피츠제럴드는 재즈시대의 의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재즈라는 단어는 첫째로 섹스, 그 다음 춤, 그리고 음악을 의미해왔다. 그것은 전선의 후방에 있는 대도시들의 상태와 다르지 않은 초조한 흥분의 상태와 관련이 있다.

The word Jazz [. . .]has meant first sex, then dancing, then music. It is associated with a state of nervous stimulation, not unlike that of big cities behind the lines of a war. (180)

재즈시대에는 재즈음악, 춤, 자동차 등으로 대변되는 돈과 환락의 시대로, 새로운 향락주의, 자유에 대한 개념의 혼란이 빚어낸 무책임, 돈이란 얼마든지 벌 수 있으니 물 쓰듯이 쓰면 된다는 그릇된 인식, 전쟁의 고통에 대한 반동에서 비롯된 사치스런 생활과 흥겨운 파티 등이 널리 만연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주일학교에서조차도 미덕은 돈으로 보상받고, 악덕은 돈의 상실로 벌 받는다고 배웠다. 그러한 분위기에서 젊은이들이 분명히 인생의 목표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돈을 그것도 빨리 버는 것이었다(Cowley 61).

이러한 재즈시대(The Jazz Age)를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피츠제럴드는 젊은 나이에 짧은 기간 동안 부를 이루고, 많은 남자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남부의 미인 젤다 세이어(Zelda Sayer)와 결혼 하였다. 동시대를 살았던 청년들이 꿈꾸었던 일을 성취한 그는 이 시대의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다. 그러나 『낙원의 이쪽』(*This Side of Paradise*)의 성공으로 부를 이룬 피츠제럴드와 젤다는 사치와 낭비를 일삼았다. 벌어들인 돈으로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하여 빚과 생활고에 시달려야만 했다. 이러한 시기에 그는 『위대한 개츠비』를 저술 하였다.

이 작품은 줄거리만 볼 때 비극으로 끝나는 허무한 사랑이야기이다. 소설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를 다시 찾기 위해 물질적으로 성공을 하지만, 끝내 그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는 죽고 마는 슬픈 이야기인 것이다. 주인공 개츠비와 피츠제럴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피츠제럴드 본인도 “때때로 나는 실제의 나와 내 소설속의 한 인물과를 혼동하게 된다”(Cowley 149)고 말한 적이 있다. 사랑하는 여자를 얻기 위해 물질적인 성공을 이루고, 연일 호화스러운 파티를 하며 끝내 초라한 죽음을 맞이하기까지의 개츠비는 작가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카진(Alfred Kazi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실상 피츠제럴드가 개츠비였다. 이 소설 속에서 궁극적인 안식처이자 진정한 성공의 상징으로 반짝였던 초록빛 등불은 . . . 피츠제럴드 자신을 위한 불빛이었다”(178).

즉, 개츠비가 그토록 열망하던 초록빛 등불은 작가 자신이 바라던 이상이자 삶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피츠제럴드는 단순히 이 작품에서 자신이 살아온 시대의 생활상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온스타인(Robert Ornstein)은 『위대한 개츠비』가 부패한 사회 속에서 빚어진 아메리칸 드림을 그의 뛰어난 상상력으로 극화시킴으로써 아메리칸 드림을 하나의 신화로써 창조하는데 성공하고 있다고 말한다(604).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를 통하여 정신적으로 부패한 당대의 미국을 진단함과 동시에, 그 시대 속에서 정신적 지주를 잃고 살아가는 당대의 미국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관을 확립시켜 주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극적인 사랑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개츠비』가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미국적인 소설”로 칭해지며 널리 읽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본 논문의 취지는 각 등장인물이 아메리칸 드림을 어떻게 또는 어느

방향으로 추구하여 나아가고 있으며, 이 작품을 통해 피츠제럴드가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고찰하고자 하는 데 있다. 2장에서는 본 논문의 전반적 주제인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의 역사를 통해 그 개념을 알아보고, 3장에서는 주인공 개즈비 뿐만 아니라 주변 등장인물을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여러 양상들을 분석할 것이다. 첫 번째로는 지나친 이상추구로 인해 파멸하는 개즈비의 아메리칸 드림의 궤적을 조사하고, 두 번째로는 지나친 물질주의로 인해 아메리칸 드림의 진정한 정신을 깨닫지 못하는 톰(Tom)과 데이지(Daisy) 그리고 머틀(Myrtle)의 세계를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물질을 추구하나 정신적인 면도 꿈꾸는 도덕주의자 닉(Nick)의 아메리칸 드림을 고찰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결론을 다룬다.

II.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

『위대한 개츠비』를 논하는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말이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만큼 이 작품은 아메리칸 드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뜻일 것이다. 이에 대해 루이스(R. W. B. Lewis)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메리칸 드림은 타락한 구대륙 유럽을 떠나 신대륙에서 신천지를 건설 하려했던 초기 개척민들의 공통된 염원을 형상화했던 개념이었다. 사실 미국은 인류를 위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실현시킬 수 있는 땅으로 인식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메리칸 드림과 신화를 형성하는 근간이 되었다”(5).

이렇듯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은 미국의 역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17세기 들어서 영국을 위시한 구대륙의 이주민들이 대서양의 험난한 파도를 넘어 미지의 신대륙을 찾아오게 된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경제적 이유와 종교적 이유가 그것이다. 그들은 본국에서 얻을 수 없었던 무한한 토지와 부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과 그들의 신앙의 자유에 대한 희망에서 그 큰 모험을 감행했던 것이다. 사실 그들이 찾아온 이 약속의 땅은 그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줄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희망이 미국의 자본주의를 건설하는 토대가 되었고, 또한 그들의 종교적 이상이 청교주의라는 특이한 도덕적 규범을 신대륙에 심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이념은 언뜻 서로 배치되는 것 같이 생각될지 모르나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디글러(Carl N. Degler)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크리스찬의 직업은 청교도 사상에 중요한 개념이었다. 그것은 또한 종교와 경제 간의 긴밀한 연결의 분명한 예로서의 역할을 한다. 청교

도에게, 크리스찬의 일은 신에 대한 봉사의 일부로 여겨졌다.

The calling or occupation of a Christian was an important conception in Puritan thought; it also serves as an illuminating instance of the tight linkage between religion and economics. To the Puritan, a Christian's work was a part of his offering to God. (6-7)

종교와 경제 사이의 밀접한 연결 관계를 인정했던 청교도들에게는 직업을 갖는 것이 신에 대한 봉사의 일부로 여겨졌다. 즉, 청교주의에서는 경제적 희망과 종교적 이상이 상호연관성을 가지며, 이들 자본주의와 청교주의의 쌍둥이 이념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건설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스필러(R. E. Spiller)는 미국문명을 건설한 근원적 동인이, 청교주의와 자본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이상주의와 물질주의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미국인들은 인간의 영원한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낙원”을 신대륙에 이룩하고자하는 욕구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상적인 욕구보다 저급하기는 하나, 세속적인 부와 성공에 대한 야망도 또한 가지고 있었다.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내면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다가 분열되고 만 인간의 갈망은 이 북미대륙에 것처럼 분열된 두 갈래 문명을 만들어 놓았다. 그것은 이 신대륙이 그 두 욕망을 모두 만족시키려는 유혹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즉, 신의를 반영할 만한 새로운 질서의 건설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의 힘으로 가능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미국문명은 그 시초부터 수대

에 미, 아이러니, 단언, 절망의 문학을 내게한 순박한 이상주의와 조 잡한 물질주의와의 부조화의 혼합의 싹이 발견된다고 하겠다.

Man's hunger, divided to serve both his physical and his spiritual needs, created on the continent of North America a civilization that was similarly divided because it offered tempting satisfaction on both the higher and the lower levels. The chance to create a new order that would reflect divine goodness was made to seem possible by an infinity of material resources which could as well feed the lowest desires. Perhaps in the beginning of American civilization can be found a clue to the incongruous mixture of native idealism and crude materialism that produced in later years a literature of beauty, irony, affirmation, and despair. (5)

이상주의와 물질주의는 신대륙을 찾아온 청교주의자들의 근원적 동기이 기는 하지만, 이질성과 동질성을 함께 내포하고 있는 아이러니를 지니고 있다. 즉, 미국적 이상주의는 그 속에 물질적 부와 성공을 바라는 물질 주의적 요소가 없는 바 아니며, 청교도주의는 그 자체가 하나의 종교적 이상이면서도 동시에 물질을 결코 경시하지 않았다. 미국의 청교주의자 들은 “신과 부의 신”(God and Mammon)(Horton and Edwards 5)을 함께 신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미국적 정신은 그 후 또 하나의 미국적 특성인 프론 티어 정신(frontier spirit)과 결합하게 되었다. 영어 “frontier”란 본래 개척지와 미개척지 사이의 경계선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초기 뉴잉글랜 드(New England)를 중심으로 한 동부지방에서부터 점차 서쪽으로 확대

되어 갔다. 이러한 프론티어 정신이 미국인의 생활과 의식에 미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는데, 그것을 처음으로 강조하여 미국의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 고려한 사람이 터너(Frederick Jackson Turner)였다. 이점에 대해 호턴(Rod W. Horton)과 에드워즈(Herbert W. Edwards)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프레데릭 잭슨 터너는 “미국 역사에서의 프론티어의 중요성”라는 논문으로, 프론티어가 민주주의와 평등에 대한 미국인의 개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특징적인 미국적 기질들(활동적임, 삶에의 실용적 접근, 지나친 문화의 세련미에 대한 성마름, 개인주의, 낙천주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상주의)을 형성하는데 대체로 원인이 되었다는 이론을 가장 최초로 주장한 사람들 중의 한 사람이 되었으며 그리고 또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주창자가 되었다. 터너는 특히 이상주의에서 미국문명의 가장 확실하게 영향력 있는 주창자가 되었다. 터너는 특히 이상주의에서 미국문명의 가장 좋은 모든 것들—즉, 민주주의, 평등주의, 인도주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생의 행운들이 충분한 정도까지 베풀어진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기인한다고 생각하였다.

Frederick Jackson Turner, with his essay, *The Significance of the Frontier in American History*, became one of the earliest, and certainly the most influential exponent of the theory that the frontier was largely responsible for shaping not only our concepts of democracy and equality but even the characteristic American temperament, with its restlessness, its pragmatic approach to life, its impatience at any too great refinements of culture, its individualism, its optimism, and above all its idealism. To this last quality Turner attributed all that is best

in American civilization [. . .] its democracy, equalitarianism, humanitarianism, and belief in a measure of the good things of life for everyone. (142)

진취적이고 낙관적이며 평등주의를 존중하며 부를 추구함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삶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이 프론티어 정신은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과 동일한 것이다. 이러한 프론티어 정신은 미국인들의 또 하나의 꿈의 상징이었으며, 그리하여 수많은 개척자들이 마차를 앞세우고 즐기차게 서부로 진출케 한 원인이 되었다.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동부에 비해서 이러한 개척자들이 갖고 있었던 특유한 진취적이고 낙관주의적인 정신이 프론티어 정신이다.

비록 19세기 말에 이르러 미국의 영토가 거의 태평양 연안까지 당도하게 되면서, 프론티어의 본래의 의미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미국인들의 정신과 의식 속에 남아 미국적 전통이 되고 있다. 『위대한 개츠비』는 개척자들의 활동이 이미 끝나버린 1920년대 재즈시대에 와서, 이 미국적 전통이 어떻게 변모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프론티어 정신이 사라져버린 서부는 이제 과거와 같은 꿈의 서부가 아니었고,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역행하여 동부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동부 지향성은 당시 하나의 시대적 현상이 되었다. 제 1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미국은 세계의 강국으로 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산업과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미국인의 생활은 전례 없는 풍요와 부를 누리게 되었다. 물질적 번영과 향락의 추구가 이 시대의 주도적인 분위기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더 나아갈 지평도 없는 서부의 젊은 세대들은 자기네들 고장의 무미건조한 생활에 염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동부의 대도시를 동경하고 그들의 선조들이 떠나왔던 동부로 다시 몰려가게 되었다. 쉐인(Charles E. Shain)은 동부를 향하는

이들이 갖고 있던 꿈의 실체를 “돈”으로 간주하면서, “피츠제럴드는 그의 세대의 중서부 인이 전형적인 미국인이 되었고 옛날의 개척자들이 돈에 대한 새로운 꿈을 안고 동부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히고 있다(34). 동부로 향하는 젊은 세대들은 새 시대의 미국인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8세기 후반에 접어들어서 청교주의가 약화됨에 따라 신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초기의 열정은 줄어들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빨리 돈을 벌겠다는 세속적인 욕심에 빠져들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앞서 언급했듯이 산업의 발달과 함께 미국의 꿈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상주의와 물질주의의 부조화라는 갈등이 결국은 물질주의에 지나친 집착으로 변질되고 개인주의를 왜곡되게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함께 스피러(Spiller)가 지적하듯이 19세기 후반에는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세 가지의 근본적인 문제가 폭발점에 올랐던 것이다. 즉, 남부의 농업경영자와 북부의 상업계급과의 대립이 결국 남북전쟁으로 폭발된 것, 프론티어가 사라지게 된 것, 그리고 제퍼슨(Jefferson)의 농본주의(rural agrarianism)와 해밀턴(Hamilton)의 산업주의(urban industrialism)와의 충돌이라는 문제들이었다(Spiller 83). 이러한 국가 환경의 변화에 의해 미국인의 의식과 문화의 근저를 형성했던 미국의 꿈은 변질되는데 그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 될 수 있겠다.

첫째로는 프론티어 정신이 소멸되었다는 사실은 아메리칸 드림의 개념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성공이라는 형태로 변질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다. 퍼셀(Edwin Fussel)의 지적처럼, 미국의 프론티어 정신은 ‘미국의 문명과 자연 사이에 있는 상상적인 선이거나 아직 창조되지 않은 미래’(17)이다. 즉, 프론티어는 꿈과 약속의 땅을 의미하며, 프론티어가 사라진다는 것은 꿈과 미래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리하여 아메리칸

드림이 낙원건설이나 미지의 개척이 아닌 사회적 성공추구로 발전되어 세속화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상주의와 물질주의의 이상적인 총체였던 아메리칸 드림이 산업주의와 그로 인한 사회악과 인성상실의 풍조로 인해 물질적인 측면만을 왜곡되게 강조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물질적인 면의 급속한 진전은 정신적인 면을 앞지르게 되었고 원래의 정신적인 이상을 망각하게 함으로써 정신과 물질의 균형이 흔들리게 되어 오히려 정신적 풍요 속에 정신적 빈곤 상태라는 불균형을 낳게 되었다. 이 물질주의에의 집착은 국가발전이라는 역사적 필연성의 부산물이었다. 20세기에 와서도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의 거대화 등의 문명의 발전은 계속되었고, 남북전쟁(1861-1865), 제 1차 세계대전(1914-1918), 경제대공황(1929)이 이어지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면서, 약속의 땅의 실현을 꿈꾸었던 위대한 아메리칸 드림의 이상은 붕괴되었으며, 그래서 20세기 초반에 나온 문학작품에서 전통적 개념의 아메리칸 드림의 이상을 찾기란 어렵게 되었고, 산업사회의 병폐 속에서 보여주는 맹목적인 물질에의 집착, 실패담, 현실에의 환멸 등으로 대체된 것이다. 드라이저(Theodore Dreiser)를 중심으로 루이스(Sinclair Lewis), 노리스(Frank Norris) 등의 자연주의 계열 작가들이나 그 이후의 피츠제럴드, 헤밍웨이(Hemingway) 등은 한결같이 아메리칸 드림의 왜곡된 허상이나 현실에 대한 환멸을 보여준다(양병택 27). 이들이 보여주는 아메리칸 드림의 주제는 비인간화된 산업사회와 사회현실에 대한 풍자와 공격으로서 물질적 성공이 오히려 인간을 구속하고 정신을 파괴하는 현실적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한편, 이같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과거의 환상을 추구하는 주제로 대별된다. 그러나 이 현실적 아이러니와 과거의 환상추구는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보겠다. 이의 대표적인 작

가가 피츠제럴드로서 1920년대의 문명의 발전과 부패라는 모순적인 현상을 적나라하게 풍자하는 동시에 그 타락된 사회에 의해 붕괴된 아메리칸 드림의 모습을 포착해내고 있다.

이상에서 아메리칸 드림은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변질되고 타락하여 갔으며,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인간의 낙원을 이룩하려는 아메리칸 드림은 물질적 성공을 향한 집착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산업사회의 부패상 등에 의해 전통적인 가치를 상실케 되었음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위대한 개츠비』의 주인공 개츠비와 주변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통한 아메리칸 드림의 여러 양상들에 대해서 고찰하기로 한다.

Ⅲ. 각 인물을 통해 본 아메리칸 드림

1. 제이 개츠비(Jay Gatsby)

1920년대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는 『위대한 개츠비』는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다가 화려하지만 부패한 물질주의에 의해 희생되는 “순진한 사람”(Savage 154)의 상징으로 또는 “미국 그 자체의 상징”(Troy 226)으로, 또는 “뿌리 없는 사회의 이상”(Dyson 117) 등으로 평가되었다. 피츠제럴드는 주인공 개츠비를 통하여 미국 역사 속에서 내려오던 아메리칸 드림이 1920년대의 재즈시대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랄리(John Henry Raleigh) 역시 이점에 대해 “피츠제럴드의 인물 개츠비는 미국 역사의 아이러니와 미국의 꿈의 부패를 나타낸다”(99)고 지적한다.

피츠제럴드가 『위대한 개츠비』에서 재즈시대를 살다간 인물들을 잘 묘사하였다고 볼 때, 그 등장인물들 중에서 개츠비는 환상을 쫓다가 파멸된 인간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현실감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되는 개츠비는 당시 혼란했던 시대에 인간의 숭고한 꿈을 이루고자 했으며, 그 꿈은 과거의 순수했던 미국인의 정신을 되찾는 것이고 그 정신은 경제적인 성취와 함께 이상의 실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즉, 개츠비는 피츠제럴드에 의하여 이 작품에서 전형적인 아메리칸 드림러(American Dreamer)이며, 이상을 추구하느라고 자신의 일생을 바친 자로 묘사된다. 불리는 이러한 그를 아메리칸 드림의 진정한 후계자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개츠비는 신화적 인물이다, 그리고 다른 어떤 말로도 그를 정의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미국의 삶의 선두에서 환상과 실제 사이 충돌을 나타내는 화신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미국의 낭만적 영웅의 전형이고 아메리칸 드림의 진정한 후계자이다.

Gatsby is a mythic character, and no other word will define him. Not only is he an embodiment of that conflict between illusion and reality at the head of American life. He is an heroic personification of the American romantic hero, the true heir of American Dream. (40)

그러면 개츠비의 꿈이 무엇이며,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좌절되는가를 미국의 꿈과 연결하여 살펴보자. 아홉 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에서 개츠비는 거의 모든 장에서 등장하지만 작가는 그를 제1장부터 바로 등장시키지 않고, 제3장에 가서야 분명히 보여준다. 단지 제1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존재를 어렴풋이 찾아 볼 수 있다. 혼자 어두운 바다를 향해 두 팔을 내뻗고 무언가를 갈구하고 있는 그에게서 무엇인가 강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향한 곳에는 부두의 맨 끝에서 반짝이는 초록색 불빛이 비추고 있었다.

그는 어두운 바다를 향해 기묘한 자세로 양팔을 뻗치고 있었다. 그와 멀리 떨어져 있기는 했지만, 나는 그가 몸을 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바다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선창의 끝부분처럼 보이는 곳에 조그마한 녹색 불빛 하나가 반짝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He stretched his arms toward the dark water in a curious way, and, far as I was from him, I could have sworn he was

trembling. Involuntarily I glanced seaward—and distinguished nothing except a single green light, minute and far away, that might have been the end of the dock.¹⁾

실제로는 어둔 밤에 뱃길을 가는 여행자를 안내하기 위한 이 초록색 불빛은 개츠비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개츠비를 초록색 불빛과 동시에 등장시킨 것은 초록색 불빛을 바로 개츠비의 이상이며 존재의 절대적인 의미로 설정하기 위한 작가의 의도인 듯하다. 이처럼 밤마다 개츠비를 향해서 비추는 초록색 불빛은 이 소설의 상징적 존재로서 개츠비의 죽음과 함께 사라져 버리고 만다. 불리는 초록색 불빛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초록색 불빛은 밤에 개츠비의 집 잔디밭과 창문에서 만을 가로질러 보이는 것으로 이 책의 중심상징이다”(46). 그토록 갈구하며 잡힐 듯 하면서 멀어지는 이 초록색 불빛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 제9장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개츠비가 조지 윌슨(George Wilson)에 의해 총에 맞아 죽고 제9장에서 그의 장례식을 치르기 직전 갑자기 아버지 헨리 개츠(Henry Gatz)가 나타난다. 화려하고 부유하던 자식의 생애와는 달리 무기력하고 초라한 농부인 그에 의해 전설 같던 개츠비의 어릴 때의 비밀이 천천히 밝혀지고, 그도 여느 미국인들처럼 성공을 꿈꾸어 왔던 평범한 젊은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지극히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 강인한 결심에 의해서 성공하고자 했던 개츠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헨리 개츠가 보여준 개츠비의 어릴 때의 계획표이다.

기상 오전 6.00

1) F. Scott Fitzgerald, *The Great Gatsby* (New York : Charles Scribner's Son, 2003) 25-26. 이후 본문 인용문 끝에 페이지를 직접 기록하기로 함.

아령체조와 담벽 기어오르기	오전 6.15-6.30
전기학 공부, 기타	오전 7.15-8.15
일	오전 8.30-오후 4.30
야구 및 스포츠	오후 4.30-5.00
발성법 연습, 자세와 습득	오후 5.00-6.00
필요한 발명품들의 연구	오후 7.00-9.00

일반적 결의

- 샤프터즈 또는 (알아볼 수 없는 이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 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지 말 것
- 이틀에 한번씩 목욕할 것
- 매주 유익한 책 또는 잡지 한 권 씩을 읽을 것
- 매주 5달러 (이것은 지워져 있다) 3달러씩 저축할 것
- 부모에게 잘해드릴 것

Rise from bed	6.00	A.M.
Dumbbell exercise and wall-scaling	6.15-6.30	"
Study electricity, etc	7.15-8.15	"
Work	8.30-4.30	P.M.
Baseball and sports	4.30-5.00	"
Practise elocution, poise and how to attain it .	5.00-6.00	"
Study needed inventions	7.00-9.00	"

GENERAL RESOLVES

- No wasting time at Shafters or [a name, indecipherable]
- No more smoking or chewing
- Bath every other day
- Read one improving book or magazine per week

Save \$5.00 [Crossed out] \$3.00 per week

Be better to parents (181)

개츠비의 계획표는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덕목을 모방한 것으로, 청교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츠비는 나름대로 부를 축적하기 위한 계획에 착수한 것이다. 개츠비가 모델로 삼은 프랭클린은 청교도적인 가르침으로 행동규범을 만들어 미국인들에게 교훈을 주는데 기여한 사람으로, 13개의 덕목 즉, 중용, 과묵, 질서, 결단, 근엄, 성실, 진실, 정의, 절제, 청결, 평정, 순결, 검약을 실천하기를 강조하였다. 그는 특히 부를 추구하는데 있어 청교주의에 입각한 도덕성을 강조하였다. 성실과 검약 등으로 부자가 된 프랭클린은 사회에 이바지하고 건국에 큰 공을 세웠다. 그의 항구적인 관심은 평민이 누릴 수 있는 멋진 신세계의 건설에 있었다. 이것은 초기 이주민들이 품었던 미국의 꿈과 일치되며 후세 젊은이들의 꿈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볼 때 맨 처음 신대륙 미국에 발을 디딘 화란 선원들의 무한한 꿈은 프랭클린을 거쳐 개츠비의 꿈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 온 것이다.

원대한 꿈을 품고 집을 나온 개츠비는 구체적인 꿈의 목표를 설정하기 이전에 슈퍼리어(Superior) 호숫가를 배회하며 성공의 기회를 포착하고자 한다. 이 때 댄 코디(Dan Cody)라는 부유한 요트의 주인을 만나 인연을 맺는다. 댄 코디의 요트가 슈퍼리어호의 가장 위험스런 곳에 닿을 내리는 것을 보고 이를 알려준 것인데, 이때부터 가난한 시골 소년 제임스 개츠(James Gatz)는 제이 개츠비(Jay Gatsby)라고 이름을 바꾸고 새로운 인생을 열게 된다.

사실은 롱 아일랜드 웨스트 에그의 제이 개츠비는 자신의 플라토닉한 상념에서 튀어나왔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의 아들이었다—이 문구

는 만일 무슨 뜻이 있다면 문자 그대로의 의미를 가졌을 뿐이지만—따라서 그는 그 아버지의 비즈니스를 돌보아야 했으며, 그 비즈니스란 방대하고 저속하고 허식적인 미에 봉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열일곱 살 소년이 창조해낸 바로 그런 종류의 제이 개츠비를 창조해냈고 이 상념에 그는 끝까지 충실했다.

The truth was that Jay Gatsby of West Egg, Long Island, sprang from his Platonic conception of himself. He was a son of God—a phrase which, if it means anything, means just that—and he must be about His Father's business, the service of a vast, vulgar and meretricious beauty. So he invented just the sort of Jay Gatsby that a seventeen year-old boy would be likely to invent, and to this conception he was faithful to the end. (104)

개츠비의 이상주의에 대한 헌신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우선 자기 자신의 현실을 넘어서서 스스로에 대한 완전하고도 이상적인 이미지를 창조한다. 그것은 즉 “신의 아들”의 이미지이다. 그리하여 그가 할 일도 “그의 아버지의 사업, 즉 거대하고, 저속하고 허식적인 아름다움에 종사”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의 중서부적 배경에서 온 환상적이고, 순진한 성격이 만들어낸 그의 이상주의이다. 그의 이러한 이상주의가 1920년대의 재즈시대에 와서 타락한 동부의 배금주의와 결탁하는 데서 그의 비극은 잉태되기 시작한다. 개츠비는 1919년에 월드 시리즈(The World Series)경기를 매수했던 마이어 울프심(Meyer Wolfshiem)과 같은 타락한 험잡배와 결탁함으로써 일확천금을 벌었다. 그리하여 그는 잃어버린 옛 애인을 다시 찾기 위하여 그의 “거대하고, 허식적인 꿈의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양병택 86).

몇 년 후 육군 중위가 된 그 앞에 “거대하고, 저속하고, 허식적인 아름다움”은 데이저라는 구체적인 인물로 나타난다. 미와 부를 풍만하게 갖춘 데이저에 압도당한 개즈비는 5년 뒤에 귀국 후 과거의 사랑을 되찾고자 자신의 일생을 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개즈비는 데이저가 사는 이스트 에그(East Egg)의 건너편 웨스트 에그(West Egg)에 거대한 저택을 구입한다. 그리고 그는 그 저택에서 5년 전에 잃었던 데이저가 언젠가 찾아들 날을 기다리며 끊임없이 호화판 파티를 연다.

결국 개즈비는 5년 만에 데이저를 자신의 집에서 재회하게 된다. 데이저와 그의 재회는 이 소설의 중심이 된다. 개즈비는 데이저를 만나기 직전 그의 양손을 겹옷 호주머니에 추처럼 쑥 넣은 채 죽은 사람처럼 창백한 모습으로 비가 오는 바깥의 물웅덩이 속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 개즈비의 이런 순진하고 심각한 태도에 비해서 데이저의 반응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 분명한 꾸민 듯한 어조에서 곧 더할 수 없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바뀌는데서, 그녀는 이 극적인 만남에서 개즈비와 똑같이 고양된 정서적 강도를 보이고 있지 않음이 암시된다. 이 때 개즈비는 데이저에게 “당신 집의 배를 대는 부두 끝에는 언제나 초록빛 불빛이 밤새도록 켜져 있더군요”(98)라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개즈비가 그토록 갈구하던 초록색 불빛이 의미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볼 수 있다. 즉 개즈비에게 있어 데이저는 부두에서 밤새 빛나고 있는 “녹색 등 너머에 놓여있는 꿈의 약속”(Bewley 46)이었다. 그는 데이저에 대한 갈망을 초록색 불빛으로 상징했으며, 이것은 17세 때 그가 결심한 “아버지의 사업”(104)으로써 그의 평생을 건 이상인 것이다. 여기서 피츠제럴드는 개즈비를 “신의 아들”(104)로 내세움과 동시에 초록색 불빛으로 상징되는 데이저가 그의 이상이며, 이 이상을 구

하여 안주시킬 성역으로 그의 저택을 삼았음을 다음 몇 구절에서 알 수 있다. “개츠비 씨는 데이지가 건너편에 살고 있다는 걸 알고서 그 저택을 산거니까요”(83); “내 생각에 그는 데이지가 언젠가는 자기 집 파티에 참석할지도 모른다고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던 것 같아요”(84). 성배를 찾아 나서는 것이 중세 기사들의 최고의 임무였던 것처럼 개츠비는 데이지를 자신의 일생을 건 “성배”(156)로 삼는다.

5년 만에 데이지를 만난 개츠비는 자신의 성배를 모시기 위해 성역으로 삼은 자신의 저택을 데이지에게 구경시킨다. 5년 전 데이지의 아름다운 집을 보고 신선한 충격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가 이제는 어엿한 대저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집을 구경시켜준다. 이것은 그가 오랫동안 키워 온 꿈의 정점이며 이제 그것을 그녀의 눈앞에 내보임으로써 구체적으로 꿈을 실현하는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그는 데이지가 집을 돌아보는 동안 그녀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녀로부터 나오는 반응 정도에 따라 자기의 모든 소유물들을 재평가하고 있는 듯하다. 자신의 모든 소유물들은 그동안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해 온 결정적인 물건들이며 그중에서도 그가 보여주는 셔츠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고 있다. 그런 만큼 셔츠는 하나의 상징으로써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집안 곳곳을 구경시킨 후 개츠비는 수많은 옷들이 쌓여있는 고급스러운 옷장을 열어 보인다.

그는 와이셔츠 더미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씩 우리 앞에 던졌는데, 옅은 리넨 셔츠, 두터운 실크와 고급 플란넬 셔츠들이 떨어질 때마다 개켜졌던 것이 풀리며 가지각색으로 테이블을 덮었다. 우리가 감탄하자 그는 더 가져왔고, 그리하여 부드럽고 값비싼 셔츠의 더미는 더욱 더 높아졌다—줄무늬 셔츠, 소용돌이무늬와 산호빛의 바둑판무늬, 능금빛과 보랏빛, 하늘색 글자무늬가 있는 옅은 오렌지색 등이었다.

He took out a pile of shirts and began throwing them, one by one, before us, shirts of sheer linen and thick silk and fine flannel, which lost their folds as they fell and covered the table in many coloured disarray. While we admired he brought more and the soft rich heap mounted higher—shirts with stripes and scrolls and plaids in coral and apple-green and lavender and faint orange, with monograms of Indian blue. (97-98)

개츠비는 자신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성공했는지를 데이지에게 보여주고 그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다. 개츠비의 모든 소유물처럼 셔츠들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대상 중의 하나이며, 더 나아가서는 초록색 불빛과 같은 신성함을 갖는 것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순수한 목적을 갖고 이것들을 데이지에게 보여준다. 개츠비는 그 물질적 대상들을 데이지가 가치롭게 여길 만한 것들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이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개츠비는 그의 정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질적 수단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개츠비가 데이지에게 셔츠를 보여 주고 난 후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에서 감상적이고 천박한 단면이 드러난다.

갑자기 일부러 꾸민 소리를 내며, 데이지는 그녀의 머리를 셔츠들 속으로 파묻으면서 와락 울기 시작했다. “이건 정말 아름다운 셔츠들이예요.” 그녀는 훌쩍거리고, 음성은 겹겹이 쌓인 셔츠 더미 속에 묻혀 버렸다. “슬퍼져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아름다운 셔츠를 본 일이 없으니까요.”

Suddenly, with a strained sound, Daisy bent her head into the shirts and began to cry stormily.

“They're such beautiful shirts.” she sobbed, her voice muffled in the thick folds. “It makes me sad because I've never seen such-such beautiful shirts before.” (98)

데이지는 감격에 못 이겨 셔츠 더미 속에 얼굴을 파묻고는 와락 울기 시작하고 이제 개츠비는 그녀가 마침내 자기에게로 돌아온 것 같이 느껴진다. 5년 만에 다시 그녀를 만났을 때의 당황함과 환희가 사라지자 개츠비는 이제 그녀의 존재에 대한 놀라움으로 넋을 잃는다(97). 그는 너무 오랫동안 이 순간만을 생각해 왔고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으로 이 순간을 기다려 왔던 것이다. 그러나 데이지는 개츠비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범속한 여자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미 그가 만들어낸 데이지에 대한 환상은 현실과 마주쳐 깨지고 있다. 왜냐하면 데이지에 대한 개츠비의 환상이 너무나 엄청나게 컸기 때문이다. 그가 추구하는 이상은 초록색 불빛처럼 결코 그의 손에 닿을 수 없으며 그의 이상추구는 결국 실패로 끝날 수 밖에 없다.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가 그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지 모른다. 그것은 데이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가 품어온 환상의 거대한 힘 때문이다. 그 환상의 힘은 그녀를 초월하였으며 모든 것을 뛰어 넘어 버렸다.

There must have been moments even that afternoon when Daisy tumbled short of his dreams—not through her own fault, but because of the colossal vitality of his illusion. It had gone

beyond her, beyond everything. (101)

하지만 개즈비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는다. 개즈비의 불가능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도전은 니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나라면 그녀에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나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럼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소리쳤다. “아닙니다. 과거도 되풀이 할 수 있습니다.”[. . .]

“나는 모든 걸 예전처럼 되돌려 놓을 겁니다. 이제 두고 보면 알게 될 겁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말했다.

"I wouldn't ask too much of her." I[Nick] ventured. "You can't repeat the past"

"Can't repeat the past?" he[Gatsby] cried incredulously. "Why, of course you can!"[. . .]

"I'm going to fix everything just the way it was before," he said, nodding determinedly. (116-117)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이상을 추구해가는 그의 성격에는 설명하기 힘든 점이 있다. 그는 과거를 손만 뻗치면 잡을 수 있는 것으로 여긴다. 자신이 품고 있는 꿈을 현실과 타협시킬 줄 모르는 개즈비는 현실을 망각한 채 자꾸만 과거를 되돌리기를 고집한다. 시간이란 현실 세계에서 결코 피할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막대한 힘을 가진 개념인데 이러한 시간의 특성을 무시하고 도전하는 것은 곧 자연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다. 개즈비의 꿈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은 그의 의지나 노력 혹은 용기

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만 그 꿈이 사실상의 과거, 즉 이미 회복할 수 없는 과거의 환상이기 때문이다.

개츠비의 데이지에 대한 애정은 맹목적이지만 순수하다. 하지만 데이지가 개츠비에 대해 품고 있는 애정은 과거에 속한 것이며 그 과거의 애정마저도 확실치 않다. 즉, 그녀에게 개츠비는 그저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새롭게 나타난 흥미거리일 뿐인 것이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톰과 데이지 그리고 개츠비가 함께 모인 뉴욕 플라자 호텔(Plaza Hotel)에서 톰이 개츠비의 뒷조사를 하여 그 사실들을 나열할 때 데이지는 나서지 않는다. 개츠비에 대한 톰의 인신공격이 심해져도 그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한다. 애초에 데이지는 자신의 남편을 떠날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지금 와서 개츠비와의 사랑을 재확인하고 결합한다는 것은 그녀에게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믿고 있던 개츠비는 데이지가 자신의 남편을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데이지의 대답은 개츠비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고 사실상 그것은 톰과의 싸움에서 개츠비의 패배 통보나 다름없었다.

“아,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걸 원하고 있어요!” 데이지는 개츠비를 향해 외쳤다. “난 지금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대구요!” 데이지는 어쩔 줄 모르며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한때 저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당신도 사랑했어요.”

"Oh, you want too much!" she cried to Gatsby. "I love you now - isn't that enough? I can't help what's past." She began to sob helplessly. "I did love you once—but I loved you too."

(139-140)

사실상 데이지의 대답은 톰의 승리이자 개즈비의 패배를 의미한다. 과거를 되찾고자 필사적인 개즈비에게 “당신만을 사랑해요”(I love you only) 대신 “당신도 사랑했어요”(I loved you too)라는 데이지의 말은 일생에 걸친 그의 꿈을 무너뜨리고 마는 것이다. 꿈이 깨어지면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그 자신의 이상적인 개념(Platonic conception of himself [104]) 또한 와해된다. 이렇게 볼 때 그의 죽음은 필연적이며 논리에 맞는 귀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개즈비와 데이지가 함께 뉴욕에서 롱아일랜드로 돌아오는 길에 데이지의 실수로 톰의 정부인 머틀을 치어 죽인다. 개즈비는 데이지를 밤새 걱정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데이지는 톰과 함께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여 간접적으로 개즈비를 살인자로 몰고, 결국 개즈비는 머틀의 남편인 월슨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이와 같은 개즈비의 죽음은 개즈비로 구현되어 오던 미국의 이상주의가 톰으로 대변되는 타락한 물질주의에 의해 패배 당하였음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즉, 자신에 국한된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에 살면서 이상에 몰두한 개즈비는 시대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결국 파멸된다.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것은 막을 내리나, 너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데 있어 타락하지 않고 순수함을 유지한 개즈비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한다.

“그 사람들은 전부 쓰레기요!” 나는 잔디밭 저편을 향해 외쳤다. “당신은 그 사람들 전부를 합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사람이요!”

"They're a rotten crowd." I shouted across the lawn. "You're worth the whole damn bunch put together." (162)

화란 선원들의 정신적인 후계자인 개츠비는 이상과 물질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현대 미국사회를 상징한다. 그가 물질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물질의 승리를 의미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닉에 의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받으며 부활되는 개츠비의 정신은 닉으로 이어지고 이는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의미한다. 그의 죽음은 이상과 물질의 불균형적인 아메리칸 드림의 소멸과 동시에 물질과 이상의 균형을 이룬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는 미국사회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 따라서 새 아메리칸 드림의 뿌리가 된 개츠비의 이름에 Great를 붙인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상의 진정한 가치가 일깨워지므로 그 죽음은 결코 헛된 죽음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다.

2. 뷰캐넌 부부(The Buchanans)와 머틀 윌슨(Myrtle Wilson)

톰과 그의 아내 데이지는 1920년대의 경제적인 부가 만들어낸 무위도식하는 계급에 속하는 인물로서 물질만을 삶의 근본으로 하는 물질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다. 개츠비의 가치와 위대성은 그의 적대자인 톰과 그의 아내 데이지, 그리고 그의 정부인 머틀의 물질적인 면과 비교될 때 더욱 선명하게 부각된다. 먼저 개츠비와 톰 그리고 데이지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톰은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소유하였으며, 돈을 물 쓰듯이 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각종 스포츠에 능하고 육체적으로 부각이 되는 인물이다. 그의 신체에서 풍겨 나오는 인상 또한 탐의 성격을 짐작케 하는 부분이다. 제1장에서 Nick은 그에 대한 인상을 이와 같이 묘사한다.

그는 이제 다황색 머리를 한 30세의 건장한 남자가 되어 있었고 말투가 거친데다가 사람을 깔보는 듯한 태도마저 지니고 있었다. 거만하게 빛나는 두 눈이 그의 얼굴전체를 지배하고 언제나 공격적으로 몸을 앞으로 내미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승마복이란 대개 연약한 멋을 풍기기 마련이건만 그것조차도 탐의 몸의 거대한 힘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엄청난 힘을 낼 수 있고—바꾸어 말하면, 잔인한 몸이었다.

Now he was a sturdy, straw haired man of thirty with a rather hard mouth and a supercilious manner. Two shining, arrogant eyes had established dominance over his face and gave him the appearance of always leaning aggressively forward. Not even the effeminate swank of his riding clothes could hide the

enormous power of that body—[. . .] It was a body of enormous leverage—a cruel body. (11)

개츠비가 정신에서 그 힘이 솟아난다면, 톰은 그의 무자비한 육체가 힘의 원천이다. 개츠비가 생에 대한 믿음과 희망에 가득 차서 환상을 쫓으며 살다간 인물이라면, 톰은 위선과 오만과 허세로 가득 차 있는 인물이다. 이러한 톰을 이블은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톰 뷰캐넌은 음탕한 육욕을 가지고 있고, 명료한 시각과 통찰력은 더군다나 있을 수 없는 상상력이 결핍된 야수와 같은 인간이다”(94).

톰은 “딴 인종들이 모든 것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 지배종족인 우리에게 달려 있어”(17)라는 말로서 백인종에 대한 우월감, 유색인종에 대한 편견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또한 그의 정부 머틀의 남편인 윌슨에 대한 태도에서 빈곤한 자에 대한 그의 오만함을 볼 수 있고, 이종의 사생활에 대한 비판 장면—“요즘 세상 사람들은 가정생활과 가족 제도를 비웃기 시작했어.”(137)—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어느 면에서 톰의 모습은 개츠비가 품었던 종류의 환상이 배제된 현실적인 면으로 보여 진다. 다이슨(A. E. Dyson)은 그를 개츠비와 비교하여 “개츠비와 톰 사이의 싸움은 환상과 현실 사이의 싸움의 한 단계이다”(121)라고 말한다.

톰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남자다.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소유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소유할 수 있고, 또 싫증이 나면 버리고 심지어 파멸까지 시킬 수도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테이지 역시 그 거대한 부를 이용하여 산다. 아름답고 순결하며 하얀 궁전에 높이 사는 왕의 딸 같던, 황금의 소녀(127)였던 그녀는 생에 대한 믿음과 희망뿐 어떤 장래성도 갖지 못했던 개츠비를 버리고 톰을 택한다. 그녀는 개츠비 대신 톰을 택함으로써 정신 대신 물질을 추

구하며 나아가기를 선택한 것이다. 어느 의미에서 보면, 이미 물질적인 삶의 영위자로서 데이지에게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당대의 물질주의 그 자체를 상징하는 톰과 결탁하지만 데이지는 개즈비의 승배의 대상이 되어 밤마다 빛나는 초록색 불빛으로 상징된다.

톰과 데이지는 결혼 후 정신적인 안착을 하지 못하고 프랑스와 미국 곳곳을 떠다니다가 뉴욕 근처 롱 아일랜드의 이스트 에그까지 온다. 여기서 피츠제럴드가 톰 부부를 이스트 에그에 거주시킨 것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 이 작품에서 서부가 대체로 희망과 소박함과 낭만이 깃든 곳이라면 동부는 “오직 마이다스(Midas)와 모건(Mogan), 마에케나스(Mæcenas)만이 알고 있었던 눈부신 비밀을 보여 준다는 약속의 땅”(8)으로 부를 상징하는 곳이다. 그러나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이 도시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모의 땅이다. 개즈비가 동부에 거주하면서 이상을 쫓아 산 것과는 반대로 톰 부부는 동부에 거주하면서 거위가 낳은, 결코 입에 넣고 먹을 수 없는 황금알을 안고 물질적으로는 풍부하나 정신적으로는 굶주린 채 살아간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대인의 정신적으로 고갈된 삶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안착하고자 온 이스트 에그에서 여전히 불안정한 데이지의 생활은 제1장에서 너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상징적으로 나타난다.

산들 바람이 방안으로 불어와 커튼의 한쪽 끝은 안으로 다른 쪽은 밖으로 나부끼게 했다가 분말 설탕을 입힌 웨딩 케이크를 연상시키는 천장 쪽으로 치솟았다가는 진홍색 양탄자 위로 흘러내려 바다에 파도가 일 듯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방에서 유일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은 커다란 의자뿐이었는데 그 의자에는 젊은 여자 두 명이 단단히 매 놓은 기구라도 타고 있는 듯 앉아 있었다.

A breeze blew through the room, blew curtains in at one end and out the other like pale flags, twisting them up toward the frosted wedding cake of the ceiling—and then rippled over the wine—colored rug, making a shadow on it as wind does on the sea. The only completely stationary object in the room was an enormous couch on which two young women were buoyed up as though upon an anchored balloon.(12)

바람 때문에 방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듯이 보이며 데이지가 마치 기구라도 타고 있는 듯이 불안해 보이는 것처럼 그녀의 삶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정해 하는 데이지가 “오늘 오후에 우린 무얼하지요? 그리고 다음 날은, 그리고 또 앞으로 30년 동안은?”(125)이라고 소리치는 말에서 정신적으로 빈곤한 전형적인 당대인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개즈비가 맨 처음 그녀를 만나 키스를 나눌 때 완전했던 성취의 순간에 그에게 “신의 인간화”(117)가 되었던 그녀도 객관적인 관찰자인 너의 눈에는 이기심만 소유한 하잘것없는 인간에 불과한 것이다. 너에게는 성숙치 못한 유아적 기질의 소유자인 그녀가 딸을 가진 어머니라는 사실이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또한 놀랍기조차 하다.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녀에게서 희생과 사랑의 상징인 어머니의 노릇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는 역할로 보여 진다. 핑(Tang Soo Ping)은 이러한 데이지의 양면성을 도덕적으로 타락한 무책임한 인간의 전형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신체적 이미지가 무엇이건 간에, 데이지의 캐릭터는 더 어둡고 덜 매력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변덕스럽고 보잘

것 없을 뿐 아니라 그녀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사실 그녀는 무책임하고 의식없이 행동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파괴적이다.

Whatever her physical image, however, Daisy's character contains a darker, less attractive side. She is not only flighty and trivial, but also selfish, ruthlessly using others for her own ends. Indeed she is morally destructive because she is irresponsible and acts without conscience. (58)

데이지의 유아적 기질은 피상적인 것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개체의 이면을 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표면만으로 평가하는 물질주의의 상징적인 인간이다. 이러한 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개즈비가 5년 만에 처음으로 데이지를 자신의 집에 초대했을 때 개즈비의 아름다운 셔츠를 대하는 그녀의 태도에서도 잘 엿볼 수 있다. 개즈비에게는 셔츠가 아름다움이나 부가 아니라 그의 이상성취의 일부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녀는 파악하지 못한다. 그녀는 그 셔츠들이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기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상적인 것에 대하여 절대적인 가치를 두는 그녀의 유아적인 판단력을 개즈비의 파티에 참석한 여배우와 감독을 보면서 하는 그녀의 말에서 다시 엿볼 수 있다.

내가 마지막으로 기억하고 있는 일이라고는 데이지와 나란히 서서 그 영화감독과 여배우를 지켜보던 것뿐이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흰 자두나무 아래 서로 얼굴이 맞닿을 정도로 가까이 붙어 앉아 있었다.[. . .]“난 저 여자가 좋아요.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여배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데이지를 불쾌하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데이지의 감정이었다.

Almost the last thing I remember was standing with Daisy and watching the moving-picture director and his Star. They were still under the white—plum tree and their faces were touching except for a pale, thin ray of moonlight between.[. . .] "I like her," said Daisy. "I think she's lovely."

But the rest offended her—and inarguably, because it wasn't a gesture but an emotion. (113)

흔히 배우를 환상적이고 비실존적인 인물로 보듯이 여기서도 배우를 실존인물이라기 보다 아름답고 환상적이며 피상적인 존재로 보았을 때, 데이지가 그녀(Star)를 좋아한 것은 실체가 없는 환상을 쫓는다는 것과 상통한다. 결국 데이지의 감정이나 행동의 기준은 감각적인 느낌이나 시각적인 관찰에 의한 것에 불과하다. “너는 농작물 재배라든가, 무슨 그런 얘기는 할 수 없니?”(17)라고 묻는 닉의 말처럼 그녀의 관심은 인간의 현실적인 피땀 어린 노력과는 거리가 멀다. 물질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안일하게 살아온 그녀는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기 보다는 이미 소유하고 있으므로 성취해 보겠다는 야심도 좌절이나 성취감 또한 느껴보지 못했다. 이러한 그녀는 남편 톰과 마찬가지로 행복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데이지는 개즈비의 생의 가능성에 대한 끊임없는 제스처를 파악하지 못한다. 표면에 드러난 것만으로 그를 사랑하다가, 그의 불법적인 생활이 조금씩 드러나자 여지없이 그를 버리고 만다. 개즈비에게 신의 화신이었던 그녀는 개즈비의 이상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속물적이고 타락한 미를 지닌 여자에 그치고 만다. 그녀는 냉혹한 남편이 속한 부류의 일원으로 머물기를 택한다. 그러므로 데이지가 개즈비 대신 톰을

택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자동차 사고로 머틀을 죽이고 난 후, 그녀는 개츠비를 완전히 떠나 톰에게로 간다. 직감적으로 톰에게 가야만 자신의 범죄가 은폐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녀는 톰에게서 강한 동질성을 느낀 것이다. 데이지와 톰은 정신적으로 잘 맞는 한 쌍으로 함께 사실을 은폐하여 간접적으로 개츠비를 살인자로 몬 후 이상을 상실한 무리들 속으로 잠적해 버린다. 이와 같이 뷰캐넌 부부는 이기적이고 파괴적이며, 부주의한 인간들이다. 무책임한 그들은 방종한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오로지 부가 제공하고 보호하는 영원한 도덕적 사춘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들은 개츠비가 추구하는 이상에 역행하는 무질서한 물질주의에 속한다.

모든 것이 너무나 경솔하고 또 복잡하게 뒤얽혀 있었다. 그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었다. 톰과 데이지—그들은 사물들과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그런 뒤 그들의 돈이나 혹은 엄청난 부주의 혹은 그들을 결속시켜주는 것이면 무엇이든 그 뒤로 숨어서는, 자기들이 저지른 혼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했던 것이다. . . .

It was all very careless and confused. They were careless people, Tom and Daisy—they smashed up things and creatures and then retreated back into their money or their vast carelessness, or whatever it was that kept them together, and let other people clean up the mess they had made
(187-188)

톰의 세계에 속한 사람은 데이지 외에 그의 정부 머틀이 있다. 데이지를 돈으로 사듯이 머틀을 돈으로 이용하는 톰은 그녀의 세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대문명의 도시인 뉴욕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재의 계곡(the valley of ashes)에 사는 머틀은 손만 대면 스러져 버릴 재의 인간으로 묘사된다.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고 생동감이 넘치는 서부와 달리 재의 계곡에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존재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곳이다. 피츠제럴드는 재의 계곡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이곳이 재의 계곡이다—재들이 마치 밀보리 같이 자라서 산등성이와 언덕과 괴이한 정원으로 바뀌는 환상의 농장이다. 이곳에서는 재들이 집과 굴뚝과 연기의 모습이 되기도 하고 초자연적 노력으로 마침내는 잿빛의 인간들의 형상,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 하더니 벌써 가루 같은 공기 속으로 무너져 내리는 인간들의 형상이 되기도 한다.

This is a valley of ashes—a fantastic farm where ashes grow like wheat into ridges and hills and grotesque gardens, where ashes take the forms of houses and chimneys and rising smoke and finally, with a transcendent effort, of men who move dimly and already crumbling through the powdery air.
(27)

이곳은 새 생명이 살 수가 없는 땅이다. 이미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곳이다. 이러한 곳에 살고 있는 머틀 역시 정신적으로 황폐한 인간이다. 한쪽에 더러운 강을 경계로 하고 있는 재의 계곡에서 자동차 수리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사는 머틀 또한 데이치처럼 여러모로 톰과 비슷한 점을 가지고 있다. 머틀과 톰의 동질성을 우선 외적인 면에서 보면 둘 다 건장하고 생명감이 넘치며 거칠고 자극적이다. 또한 강한 육체와는 달리 정신적으로 당대문명에 오염되어 물질만을 추구하는 인간들로 묘사된다. 톰이 머틀에게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

하는 한편 머틀은 톰에게서 부와 그로 인한 사회적 계층의 향상을 원한다. 다이슨은 머틀 또한 데이저처럼 톰을 사قم으로써 정신적으로 부패해진다고 말한다. “그녀는 톰과 불륜의 관계를 갖고 그의 삶의 방식을 취한다. 그녀는 부유층 사람들처럼 오직 야비해지고 타락한다. 그녀는 자신의 계급에 속한 사람들을 깔보고 모든 도덕심을 잃는다”(112).

소유욕이 상대적으로 약한 데이저와는 반대로 풍요롭지 못한 머틀은 물질에 대한 소유욕이 강하다. 빈곤한 서민 출신인 그녀는 항상 무언가를 갖고자 갈망하며 조금이라도 소유하게 됨으로써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톰과 함께 뉴욕의 아파트로 가던 중 길거리에서 강아지를 사는 장면은 그녀의 물질적 소유욕을 보여준다. “이 강아지는 수컷(a boy)인가요, 암컷(a girl)인가요?” 하고 그녀가 묻자 강아지를 파는 노인은 “그놈 말입니까? 그놈은 수컷이지요.”라고 대답한다. 그러나 곧이어 톰은 “그건 암캐(a bitch)야.”라고 딱 잘라 말한다(32). 이 장면에서 강아지는 머틀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머틀은 톰에 의해서 암캐(a bitch)로 밖에 인정받지 못하지만 스스로를 "a girl"이라 여기며 이미 상류사회의 일원이라는 환상에 빠져 행복해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소유욕은 아파트의 실내 장식에서 더욱 잘 드러난다. 실내는 넓이에 어울리지 않게 큰 색무늬를 넣은 가구 한 세트로 꽉 채워져 있고, 그리하여 움직였다 하면 가구의 무늬에 부딪힐 지경이다(33). 주문해 올 물건들의 목록만 보고도 행복에 도취되어 버리는 머틀의 모습에서 그녀가 상류사회의 기준을 오로지 물질의 유무에만 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머틀은 톰의 부와 그 부가 만들어 준 세계를 동경하여 스스로 그의 정부가 되어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이 된다. 이처럼 물욕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공허하게 살아가는 데이저에 비해 머틀은 강력한 소유욕을 지닌 속물이다. 윌슨(Edmund Wilson)은 이러한 데이저와 머틀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안전과 존경할 만한 사회적 지위를 위해 데이지가 부에 의존하는 것과 톰이 158번가에 제공한 아파트 안에서 머틀 윌슨이 부가 허락하는 순간적인 특권들을 원기 왕성하고 거만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을 흥미롭다.

It is interesting to compare notes on Daisy's dependence upon wealth for the security and "respectability" it grants, with Myrtle Wilson's lusty and even primitively arrogant assumptions of its momentary privileges, in the apartment Tom Buchanan provides for her on 158th street. (116)

그러나 인간의 순수한 이상을 도외시하고 노력에 의해서 결실을 얻고자 하지 않으며 사물의 표면만을 보고 거기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 한다는 점에서 데이지와 머틀은 동질성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자들이다. 머틀은 결국 데이지의 자동차에 치여 죽음으로써 부가 상징하는 상류층의 일원이 되려는 그녀의 소망도 무너져 버린다. 핑은 그녀는 자신이 속하고자 갈망했던 세계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한다. “그녀의 야망에도 불구하고 머틀은 톰의 계급 안에 그녀의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에 성공하지 못한다. 위기가 왔을 때 부자들은 모든 외부인들에 대항하여 함께 맞선다”(33). 이러한 점에서 뷰캐넌 부부에게 과멸되는 개츠비의 모습을 머틀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머틀과 개츠비는 비록 그 소망은 달랐지만 둘 다 당대 사회의 희생물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개츠비를 위대하게 보는 데 반해 머틀을 속물로 보는 것은 그들의 이상의 차이 때문이다. 개츠비는 순수한 꿈을 그리며 그의 꿈은 희망과 집념으로 이루어졌고, 물질은 단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

다. 그러나 머틀은 부를 얻기 위하여 톰을 이용했고 부 자체가 그녀의 목적이었다. 머틀은 꿈을 잃은, 정신이 죽은 속물적인 인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상의 톰, 데이지 그리고 머틀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으나 그들이 물질의 세계에 둘러싸여 숭고한 인간의 정신세계를 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부류에 속하는 인물들이라 볼 수 있으며 이 세 사람 모두가 직접 혹은 간접으로 개츠비를 죽인 자들이다. 지극히 현실적인 그들은 물질적 성공에 대한 집착으로 말미암아 도덕과 양심마저 저버리고 삶의 진실한 목표나 가치를 상실한 채 외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 그들은 꿈을 잃고 방황하며 정신적인 황무지 속에서 살았던 1920년대의 미국인들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3. 닉 캐러웨이(Nick Carraway)

이 작품에서 피츠제럴드가 추구하는 미국의 꿈을 대변하는 인물은 이상주의와 공상에 빠진 개즈비도 아니며 세속적 물질주의에 치우친 뷰캐넌 부부, 머틀과 같은 인물은 더욱 아니다. 그는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가운데 끊임없이 등장하면서 가장 소홀히 다루어지기 쉬운 인물인 닉 캐러웨이를 통해 교묘하게 자신이 추구하고 있는 미국의 꿈을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즈비』에서 매우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기교를 채택했다. 그것은 이전의 소설들이 대부분 전지적 시점을 채택해 온 데 비해서, 이 소설에서는 중심 사건에 단지 방관자로서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그것으로 인해서 깊이 영향을 받는 한 관찰자의 눈을 통한 1인칭 서술로 이야기를 진술케 했다는 점이다. 그는 개즈비가 허구적인 인물이 아닌 실존의 인물임을 믿게 하여 작품의 사실성을 부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닉은 자기가 전달하는 이야기에 대해 유달리 신중하고 방관자적인 시점을 가지고 “모든 판단을 유보하는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고”(5) 인물이나 사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려 한다. 그러면서도 이 소설의 모든 인물들은 그의 도덕관에 의해 평가된다.

피츠제럴드는 닉의 시각을 통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게 각 인물의 의식구조를 독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면서, 그를 단순한 화자로 내버려두지 않고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도덕적 심판자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닉이 충분한 인격을 갖춘 권위 있는 화자라는 사실이 부각된다. 그러한 설명이 없으면 독자는 닉의 이야기와 도덕적 심판을 한낱 그의 독단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츠제럴드는 이같은 우려

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충분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너의 인적사항이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너는 “온 세상이 제복을 입고 영원히 일종의 도덕적 부동자세를 취해 주었으면”하고 바랄만큼 엄격한 도덕의식을 내세우며 자신이 전달하는 이야기에 대해 유달리 조심스럽고 신중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중서부의 미네소타에서 3대에 걸쳐 살아온 유서 깊은 가문이라고 말하면서 은연 중에 그는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비친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의 충고를 저항 없이 받아들이고 또 실천해 왔음을 내세운다.

내가 더 어리고 마음의 상처를 입기 쉬웠던 시절, 아버지는 나에게 충고를 해주셨는데, 나는 그 말씀을 그 후 줄곧 마음속에 되뇌어왔다. “네가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이런 걸 생각하거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네가 가졌던 그런 유리한 처지에 있지 못하다는 걸 말이야”

In my younger and more vulnerable years my father gave me some advice that I've been turning over in my mind ever since.

"Whenever you feel like criticizing anyone," he told me, "just remember that all the people in this world haven't had the advantages that you've had." (5)

게다가 자기 스스로 “나의 욕망에 대한 제어 장치로서 작용하는 내면적 규칙들”(64)을 엄격히 지키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그는 이 작품의 도덕적 심판자로서의 자신을 부각시키려 애쓴다.

개즈비의 모든 사고와 행위는 자신의 관심과 이익을 초월하여 이상

을 추구하는 반면에, 뷰캐넌 부부는 개인적이며 이기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이들에 비해 정상적이며 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묘사되는 닉은 자신의 이익과 상대방의 이익을 잘 배합할 줄 아는 중용의 태도를 취한다. 이와 같이 닉이 취하는 중용의 태도는 그가 어릴 때부터 몸에 익혀 온 도덕심에서 온다고 보겠다. 정직을 가장 중요한 미덕으로 여기며 스스로 정직한 인간으로 자부해 온 그는 이 작품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간으로 자부한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한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미덕은 갖추고 있다고 믿는다. 내가 자부할 수 있는 미덕은 정직이다. 즉 나 자신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 얼마 안되는 정직한 사람들 중 하나라는 것이다.

Everyone suspects himself of at least one of the cardinal virtues, and this is mine: I am one of the few honest people that I have ever known. (64)

그의 도덕적인 면모는 그의 행동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닉이 개즈비를 테이지와의 만남에 초대한 후, 개즈비는 그에게 별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상당한 돈을 벌 수 있는 비밀스런 일을 그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닉은 바로 거절을 한다.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부도덕한 일이라 생각하고 가차없이 거절하는 닉의 모습은 불법적인 일로 쉽게 돈을 번 개즈비와 대조를 이룬다. 피츠제럴드는 닉을 화자로 이용함으로써, 거리를 유지하고 권위를 성취하게 된다. 닉은 여러 가지 사건에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닌 방관자로서 관계하면서 주인공 개즈비의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달한다. 그러면서 그는 개즈비로부터 정신적 영향을 받

게 된다. 닉은 자신이 직접 행동하기보다는 체험에 대한 반응과 판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닉은 개츠비와 뷰캐넌 부부 등 다른 인물들에 비해 덜 극적인 존재이며, 개츠비처럼 인생에 있어 대단한 목적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작품 전체에 걸쳐서 자신의 분명한 사고도 거의 나타내지 않는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닉의 입에서 시작하여 끝나쳐지고, 작가는 자신의 이상이나 비평 등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그를 통해서 제시한다. 독자들도 이 작품에서 얻고자 하는 것을 닉의 눈과 귀 그리고 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한 여름 동안에 닉이라는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을 엮어놓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닉은 독자 및 작가에게 있어서 등장 인물 중 누구보다도 중요한 인물이며, 개츠비 보다는 오히려 그를 주인공으로 볼 수 있다. 평은 이와 같은 닉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닉은 개츠비나 뷰캐넌 부부와 같은 위치에 놓여있지 않다. 왜냐하면 닉은 홀로서 있으며 그들 위에서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작품에서 실제 주인공은 개츠비가 아니라 닉이다”(53).

중서부 지방의 전통 있고,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닉은 종전 후 우주의 남루한 변두리로 여겨지는, 고향인 서부를 떠나 증권업으로 돈을 벌어 자립하기 위하여 동부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으로 온다. 그는 뉴욕에서 얼마간 떨어진 웨스트 에그에 있는 개츠비의 옆집에 살게 되면서 어느 날 밤 우연히 개츠비가 주시하고 있는 만 건너의 초록색 불빛을 보게 된다. 그러나 등장인물 가운데 개츠비가 그토록 갈구하던 초록색 불빛을 개츠비 외에 닉이 본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하겠다. 작가는 개츠비에게 아메리칸 드림을 추구하도록 해놓고 닉에게 개츠비를 통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보고, 평가하고, 정의를 내려주는 역할을 의도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여겨진다. 닉은 개츠비의 옆집에서 그에 대한 냉정하고, 이

성적인 관찰자, 비평가 그리고 해설자로서 자신의 위치를 변형시켜 나간다.

닉은 처음에는 개츠비의 무질서하고 환락적인 생활과 꾸며낸 듯한 말씨 때문에 그를 경멸스런 인물로 보았으나, 판단에 대한 보류의 습관으로 잠시 동안 관찰자로 머문다. 그러나 육촌 누이인 데이지 부부의 위선적인 생활과 그녀와 개츠비 사이에 얽혀 있는 관계를 알게 되자, 닉은 곧 개츠비를 이해하고 해설자로서 개입하게 된다. 관찰자이며 동시에 참여자였던 닉이 수동적인 관찰자에서 능동적인 참여자로 발전한다. 핑은 이러한 닉을 다음과 같이 평한다.

간접적으로, 뷰캐넌 부부와 개츠비와 관련된 사건들을 통해서 소설은 무관심에서 참여로, 수동적 무관심에서 이해로, 편협하고 주관적 견해에서 폭넓은 관대함으로 변하는 닉의 발전을 추적해간다.

Indirectly then, the novel through the events concerning Gatsby and the Buchanans, traces Nick's development, from detachment to participation, from passive unconcern to understanding, from a narrow, subjective outlook to a broad indulgence. (98)

개츠비처럼 이상에 몰두하기에는 현실적이고, 뷰캐넌 부부처럼 물질에 심취하기에는 지성적이며, 꿈을 가진 닉은 개츠비와 뷰캐넌 부부에 대한 비평가이자 해설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피츠제럴드는 닉이 다른 인물에 비해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의 소유자임을 보여 준다. 이것은 닉이 개츠비의 집에 데이지와 방문했다가 작별인사를 할 때 개츠비의 표정을 보면서 개츠비의 꿈의 불합리성을 깨달으면서 그의 이상의

비현실성과 불가능을 지적할 때 잘 나타난다.

작별 인사를 하러 개츠비에게 갔을 때, 나는 당황하는 표정이 다시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는 걸 보았다. 마치 그가 현재 누리는 행복에 대해 얼마간 의심이 생긴 것 같은 표정이었다. 거의 5년이라는 세월! 심지어 그날 오후에도 데이지는 그의 꿈에 미치지 못하는 순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녀 자신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그의 환상의 거창한 활력 때문에 말이다. 그 환상의 강력함은 그녀를 뛰어넘고, 모든 것을 뛰어넘었던 것이다.

As I went over to say goodbye I saw that the expression of bewilderment had come back into Gatsby's face, as though a faint doubt had occurred to him as to the quality of his present happiness. Almost five years! There must have been moments even that afternoon when Daisy tumbled short of his dreams—not through her own fault but because of the colossal vitality of his illusion. It had gone beyond her, beyond everything. (101)

또한 닉은 뷰캐넌 부부의 위선적인 생활과 지나친 사치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데이지의 무료한 생활과 톰의 이중적인 사생활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다. 닉은 교통사고 후 뷰캐넌 부부의 무책임과 부도덕성에 분노를 느끼며 뷰캐넌 부부가 부주의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저지른 혼란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다고 비난한다. 활기찬 뉴욕의 도발적이며, 모험적인 느낌이 좋았던 닉은 뷰캐넌 부부의 무책임하고 부도덕적 생활을 지켜봄으로써 동부의 생활을 경멸하게 된다. 결국 그는 그의 조상이 살았던 중서부로 돌아옴으로써 잠시 잊었던 도덕의 세계로

되돌아온다. 개츠비는 비록 그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지만 그의 실패를 자신의 경험 속으로 승화시킨 너은 서부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어나갈 각오가 되어 있었다. 너이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꿈을 품고 갔던 동부의 물질세계에 물들지 않고 꿈과 낭만이 깃든 서부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그의 도덕성 덕택이다. 그의 부모가 물려준 도덕성은 미국의 역사의식에서 생각해 볼 때 청교주의에서 가장 잘 볼 수 있으며, 청교주의가 아메리칸 드림의 한 지류로 볼 때, 이상적인 아메리칸 드림은 도덕성의 내재에 있다고 보겠다. 즉 아메리칸 드림이 이상과 물질의 적절한 결합 혹은 현실과 환상의 조화라면 이들을 이상적으로 결합시켜 주는 것이 바로 도덕성이다.

따라서 현실적이면서 꿈을 갖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도덕주의자인 너이 바로 이상적인 아메리칸 드리머라고 할 수 있다. 피츠제럴드는 너을 홀로 서부로 되돌아가게 하며 다음과 같이 너으로 하여금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함으로써 그가 바로 자신이 추구하는 아메리칸 드리머라는 것을 독자에게 확인시켜 준다.

나는 그 옛날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에 찬란히 비쳤던 이 옛 섬을 알게 되었다. 바로 이 섬은 신세계의 신선한 초록빛 가슴이었던 것이다. 이 섬의 사라진 나무들, 개츠비의 집을 위해 길을 내준 나무들은 일찍이 모든 인간의 최후의 그리고 가장 위대한 꿈에 소곤거리며 유혹했다. 덧없이 흘러가버리는 매혹적인 한 순간 인간은 이 대륙 앞에서 숨을 죽였음에 틀림없었다. 역사상 마지막으로 인간의 능력으로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을 보게 되어, 그는 이해하지도 못하고 원치도 않는 심미적인 명상에 빠졌으리라.

I became aware of the old island here that flowered once for

Dutch sailors' eyes—a fresh, green breast of the new world. Its vanished trees, the trees that had made way for Gatsby's house, had once pandered in whispers to the last and greatest of all human dreams; for a transitory enchanted moment man must have held his breath in the presence of this continent, compelled into an æsthetic contemplation he neither understood nor desired, face to face for the last time in history with something commensurate to his capacity for wonder. (189)

닉은 이와 같이 화란 선원들이 신대륙을 처음 발견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이상과 꿈을 기초로 한 것이 진정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본다. 겸손하고 소극적인 관찰자로서 시작했던 서술자인 닉은 개츠비의 인생을 통하여 아메리칸 드림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아내고 그것을 일깨워주면서 아메리칸 드림의 재성취를 희망적으로 시사해 준다.

IV. 결 론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전통적 두 가지 기준인 물질주의와 이상주의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탐색이며, 초기 청교도들이 추구했던 청교주의와 자본주의의 균형의 회복을 요구하는 작품이다. 작가는 화자인 닉의 도덕 의식을 통해서 돈을 중심으로 하는 물질문명이 인간성에 가하는 폭력적 파괴성을 고발함으로써 물질문명에 비판을 가하며, 1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잃어버린 세대” 작가들이 말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개츠비의 이상적인 꿈의 추구를 통해 전달하려하고 있다.

톰, 데이지, 울프심 같은 부자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돈과 권력의 물리적 힘은 불안함과 도덕적 부패의 형태로 나타난다. 문명이란 화려함 이면에는 열등한 사람들을 밀어 내리는 상류계급의 공격성이 있다. 상류층의 물질중심주의는 도덕적 진공상태로 나타나 톰의 복잡한 남녀관계나 데이지, 베이커와 같은 여성들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과 이기주의를 보여준다. 도덕적 중심이 없는 세계에서 사는 사람들 모두가 “부주의한 사람들”(187)로서 상징되고 있으며 그들의 행동 또한 불안하다.

시종일관 닉의 주된 관심을 끄는 인물은 개츠비이다. 그는 돈 자체를 추구하는 인물이 아니라, 데이지로 구현되는 낭만적 꿈을 추구하는 인물로서 다른 인물과 구별된다. 결국 이러한 낭만적 요소가 그를 비극적 죽음으로 몰고 가지만 개츠비 자신이 순수하지 못하고 울프심과 같은 타락한 협잡배에 연루된 점도 그의 파멸의 원인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머틀과 개츠비는 톰의 세계에서 희생물로서 제시된다. 그들은 도덕적 진공상태, 천박한 물질주의가 몰고 온 세력의 희생자인 것이다. 추악한 물질주의를 초월하는 영혼의 고결함이 톰의 잔인한 세계에서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1920년대의 미국은 물질주의에서 비롯된 환락과 타락으로 인해 도덕적 가치관이 붕괴되고 심한 권태감만 남은 정신적 죽음의 세계였다. 이것은 미국의 물질적 번영이 가져다준 부산물이었으며, 개츠비의 낭만주의 혹은 이상주의는 물질만이 가치를 지니는 황무지의 세계에서 필연적으로 무력해지고 만다. 즉, 개츠비의 순수한 낭만주의는 황무지로 대변되는 미국문명의 무미건조하고 물질적이며 부도덕한 기질에 의해서 타락되고 만다. 그러므로 개츠비는 어떤 의미에서는 물질주의로 치닫고 있는 미국 문명의 희생이 제물이며 속죄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신적 이상을 추구하는 개츠비 자신에게도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개츠비의 결점은 현실감 없이 과거에만 매달려 있고,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의 결점은 시대를 초월하여 미국의 문명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결점이라고 할 수 있고 따라서 개츠비의 비극적 죽음은 미국문명의 딜레마와 직결된다.

그러나 작가는 이 작품을 비극으로만 결말짓지 않는다. 당시의 다른 작품들과 달리 『위대한 개츠비』는 미국의 비극을 형상화하였으나, 결론에서 주요한 상징물인 초록색 불빛에 미래의 희망을 부여함으로써 이 작품을 비극적 결말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있다.

개츠비는 그 초록 불빛을, 해마다 우리들 앞에서 뒤쪽으로 물러가고 있는 극도의 희열을 간직한 미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를 피해 갔지만, 그건 문제가 안 된다. 내일 우리는 더 빨리 뺄 것이고, 우리의 팔을 더 멀리 뻗칠 것이다. . . . 그리고 어떤 맑은 아침—

그리하여 우리는 조류를 거스르는 배처럼 끊임없이 과거로 떠밀려 가면서도 계속 전진하는 것이다.

Gatsby believed in the green light, the orgastic future that

year by year recedes before us. It eluded us then, but that's no matter—tomorrow we will run faster, stretch out our arms farther. . . . And one fine morning—

So we beat on, boats against the current, borne back ceaselessly into the past. (189)

이처럼 책의 끝 부분에 가서야 비로소 톰과 데이지를 “부주의한 사람들”(187)로서, 개츠비를 “가치있는 사람”(162)으로서 평가를 내리며 희망적인 미래를 암시해 주는 인물이 바로 도덕주의자 닉 캐러웨이이다. 그는 이상과 물질이 극단을 달리는 개츠비와 부캐년 부부사이를 오가며 극단적인 개츠비의 이상도 취하지 않고 부캐년 부부의 지나친 물질주의에도 비판을 가한다. 냉정하고 지성적이면서 인간미를 갖춘 닉은 이상을 추구하나 몰두하지 않고 물질과의 사이에서 중용의 태도를 취한다. 물질주의와 이상주의가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매체를 도덕성으로 볼 때 닉의 도덕성이야말로 이 소설에서 돋보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소극적이라는 아쉬운 점이 있으나 물질과 이상이 조화를 이룬 도덕주의자 닉이야말로 진정한 아메리칸 드리머이다. 그는 선조들이 희망을 품고 서쪽으로 향해 갔듯이 삶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 주며 고향인 서부로 돌아간다. 이것은 작가가 자신의 무절제하며 방황하던 생활 이면에 감추어 둔 이상적인 자아실현의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위대한 개츠비』는 재즈 시대를 대변하는 연대기 소설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서 아메리칸 드림을 극화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Ornstein 54). 또한 이 작품은 아메리칸 드림에 대한 가장 신랄한 비평서이며 아메리칸 드림의 몰락과 재생을 가장 잘 그린 작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작품이 출판된 지 칠십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작품은 현대인의 삶의 태도, 가치관 형성의 척도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

인가를 가늠케 한다. 이 점이 바로 작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가
고 할 수 있겠다.

Bibliography

1. Primary Source

Fitzgerald, F. Scott. *The Great Gatsb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2003.

2. Secondary Source

Bewley, Marius. *Twentieth Century Interpretations of the Great Gatsby*. Ed. Ernest H. Lockridge.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1968.

Cowley, Malcolm. *Modern Critical Views: F. Scott Fitzgerald*.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House, 1985.

Degler, Carl N. *Out of Our Part: The Forces That Shaped Modern America*. New York: Harper & Row, 1970.

Dos Passos, John. *F. Scott Fitzgerald*. Ed. Alfred Kazin. New York: Macmillan, 1974.

Dyson, A. E. *F. Scott Fitzgerald*. Ed. Arthur Mizener.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 Hall, 1963.

Eble, Kenneth. *F. Scott Fitzgerald*, 2nd. Ed. Boston: Twayne, 1977.

Eliot, T. S. *F. Scott Fitzgerald*. Ed. Alfred Kazin. New York: Collier Books, 1966.

Fitzgerald, F. Scott. *Echoes of the Jazz Age*. Ed. Malcolm Cowley and Robert Cowley.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6.

Fussel, Edwin. *Frontier : American Literature and American West*. Princeton, N. J.: Princeton UP, 1965.

Horton, Rod W. & Herbert W. Edwards. *Backgrounds of American Literary Thought*.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 Hall, 1974.

Lewis, R. W. B. *The American Adam*. Chicago: U of Chicago P,

- 1955.
- Ornstein, Robert. *F. Scott Fitzgerald*. Ed. Kenneth E. Eble. New York: McGraw-Hill, 1973.
- Ping, Tang Soo. *The Great Gatsby*. Ed. A. N. Jeffares & Sunheil Bushrui. Malaya: Longman York Press, 1980.
- Raleigh, John Henry. *F. Scott Fitzgerald*. Ed. Arthur Mizen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 Savage, D. S. *F. Scott Fitzgerald*. Ed. Arthur Mizener.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 Shain, Charles E. *F. Scott Fitzgerald*. Minneapolis: U of Minnesota Press, 1961.
- Spiller, R. E. *The Cycle of American Literature*. New York: The Free P, 1967.
- Troy, William. *The Great Gatsby*. Ed. Frederick J. Hoff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Wilson, Edmund. *The Great Gatsby*. Ed. Frederick Hoffma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62.
- 박진옥.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미국적 특성』.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 안세정.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American Dream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1996.
- 양병택. 『미국문학 서설』. 서울: 탐구당, 1984.
- 이정수. 『*The Great Gatsby*에 나타난 American Dream의 이중성』. 동국대학교 대학원, 1986.

Abstract

The American Dream Reflected in the Main Characters of *The Great Gatsby*

Lee, Hye-Young

Dept. of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2004

The Great Gatsby is not only a profound study of the nature of American materialism and idealism, but also an attempt to restore the balance between the two which the early Puritans pursued. This novel is set during "The Jazz Age," a time in America when materialism was pursued at the expense of idealism. In *The Great Gatsby*, however, F. Scott Fitzgerald shows a tenacious resistance to the materialism by reporting its destructive effects on humanity through the narrator, Nick Carraway. And finally, he shows Nick as a person who can regain the balance between materialism and idealism.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how the characters, who are divided into three groups—idealist, materialist, moralist—pursue the American Dream, and what kind of person can be an ideal American Dreamer. To Gatsby, wealth is seen only as a means of achieving his dreams. So Gatsby himself may be considered as a symbol of idealism. By contrast, the Buchanans (Daisy, Tom) and Myrtle represent materialism because of their materialistic views. Their materialism is symbolized by the valley of ashes; through it, the spiritlessness of their lives is revealed. To Gatsby, the materialist Daisy is an object in need of renewal;

it is his dream to be the architect of such a renewal. Just as Dutch sailors were once inspired by the green breast of the New World, so Gatsby is encouraged by the green light to challenge the impossible. Daisy's true existence, however, is never perceived by Gatsby, blinded as he is by his own extreme idealism; as the subject of the green light, she also stands for corruption by materialism. Even though Gatsby's dream itself is corrupted by Daisy, Gatsby's ideal is in keeping with the American Dream because of his heightened sensitivity to the promises of life. Gatsby is a spiritual successor to the Dutch sailors by whom the American Dream was first fashioned.

With Gatsby killed by the Buchanans' carelessness, idealism is seemingly defeated by materialism. Fitzgerald's message is that such a dream is impossible to realize in a corrupt modern society. Behind Gatsby's death, however, is the author's own confirmation of Gatsby's victory over the corrupt society. Moralist Carraway perceives that Gatsby's idealism has not been defeated by the Buchanans' materialism but has become everlasting in its purity.

Morality is the most precious possession of mankind because, through it, a harmony between idealism and materialism may be realized. A vibrant, uncorrupt, moral spirit is of great help to people to keep sound lives in such a corrupt modern society. Consequently the ideal American Dream is, in *The Great Gatsby*, manifested in the harmony of the idealism necessary for self-improvement and the materialism necessary to support it.

In this novel, it is Nick Carraway that can be seen as an ideal American Dreamer and only Carraway returns to the hopeful West. From this event, we can derive the idea that the American Dream seems to be revived by a moralist.

